

#Savethe**LOTTE**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상의 문제점

2026년6월19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개 자료

Part 1

배경정보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대표자 메시지	4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5
1. 이사 자질 관련 외부기관의 지적·비판	
(1) 전체상	9
(2) CGCG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10
(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1
(4) 한국국민연금공단	12
(5) 경제개혁연대	13
2. 2026년 3월~4월의 주요 토픽	
【경영 부진 관련】	
(1) 롯데쇼핑 Ocado프로젝트의 실패와 경영 부진	17
(2) AI전문조직 사업상의 해체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18
(3) 640억 원을 투자한 메타버스 사업의 실적 부진	19
(4) 롯데칠성음료의 신제품 부진과 사업 규모 축소	20
【거버넌스 문제 관련】	
(5) 롯데 "분산경영"의 한계	22
(6)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동빈과 측근의 고액 보수 문제	23
(7) 적자 경영 중 신동빈의 고액 보수·배당 문제	24
(8)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시정명령	25
(9) 롯데쇼핑 임직원의 급여 인상 격차 문제	26

Part 1

배경정보

사랑받는 롯데를 향해

롯데의 창업자 신격호는 1948년, 물자가 부족하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껌을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껌 제조·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세우면서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를로테의 애칭인 '롯데'를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창업 이후 신격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품 개발에 매달리며 연구를 거듭했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발이 닳도록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노력이 쌓여 많은 소비자와 거래처의 신뢰를 얻었고, 그만큼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고객의 지지와 거래처·직원들의 협력 덕분에 롯데는 종합 제과업체로 성장했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격호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신동빈은 한국 롯데그룹에서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여러 법령을 직접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 계열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해 한국 롯데그룹 전체의 실적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동빈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임원직을 여러 곳에 겸직하며, 한국 자회사 7곳에서만 약 21억 엔에 달하는 부당한 보수를 받아 롯데그룹을 사실상 개인 소유물처럼 다뤄왔습니다. 지금의 롯데그룹이 추락한 데에는 신동빈이 롯데홀딩스 전반에서 저지른 법령 위반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비롯한 부적절한 경영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책임은 지금까지 전혀 추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롯데 창업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강한 경종을 울리며, 앞으로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자료의 공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주식회사 광윤사 대표이사 사장 신동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Part 1

배경 정보 | #Savethe LOTTE

대표자 | 신동주

-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이공학부 졸업.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대학원에서 경영공학 과정을 수료한 후, 미쓰비시상사 근무를 거쳐 롯데그룹의 판매 자회사인 롯데상사 입사
- 채산성이 악화된 미국 공장의 재건, '가나초콜릿'과 '유키미다이후쿠'의 컨셉 재개발 및 TV CF 제작 등 리브랜딩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롯데의 브랜드 전략 총괄
- 롯데HD 부회장을 거쳐, 현재는 롯데HD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사장이자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대표. 롯데HD·한국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는 부친에 해당

광윤사에 대하여

- 롯데 창업가의 자산관리회사이며, 롯데HD의 약 28%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대하여

- 신동주 및 신격호가 롯데HD에서 부당하게 내쫓긴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

최신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공식 블로그
<https://www.l-seijouka.com/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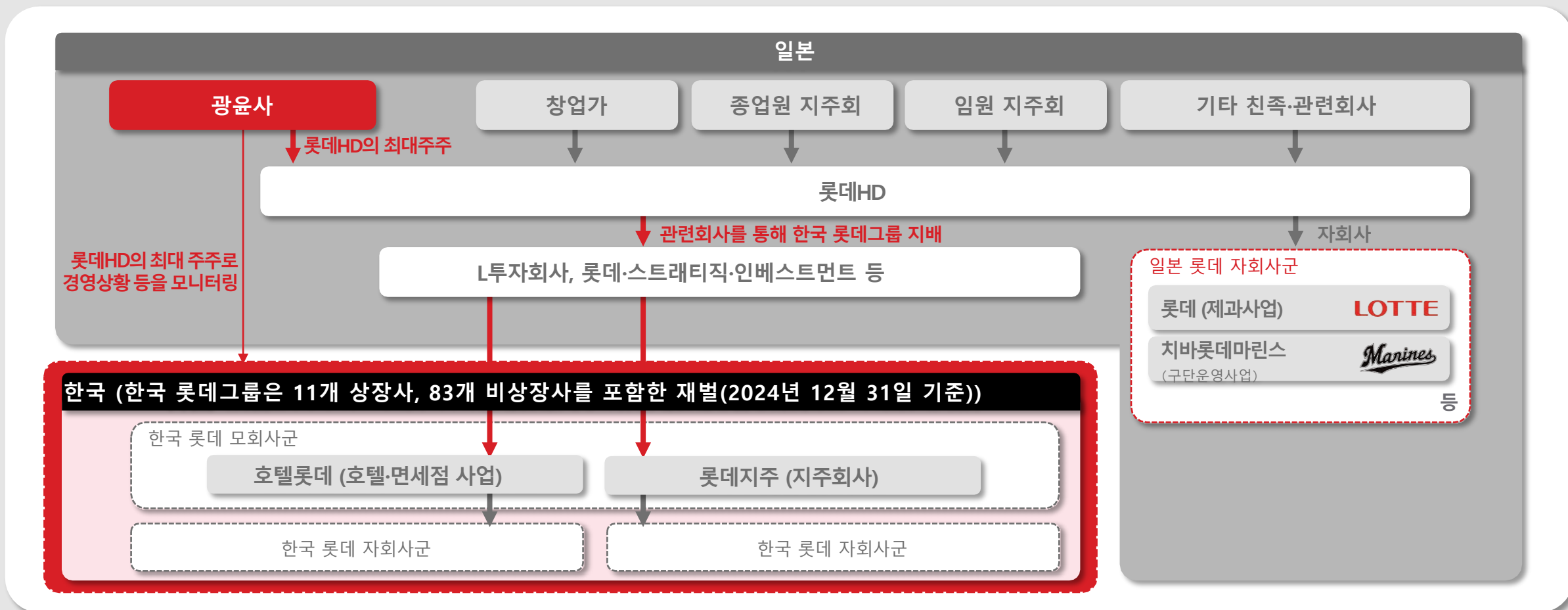


- 「신동주」 공식 X
@hiro_shigemitsu



【참고】롯데HD 및 한국 롯데그룹

- 한국 롯데그룹은 호텔롯데(호텔·면세점)와 롯데지주(지주회사) 2개를 핵심 자회사로, 롯데쇼핑(소매·유통), 롯데케미칼(석유화학), 롯데웰푸드(식품·제과)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창업자 신격호가 일본에서 창업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도 사업을 전개·확대하였습니다.
- 자본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본에서 과자·아이스크림 제조·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롯데와 프로야구단 주식회사 치바 롯데 마린스의 모회사인 롯데HD가, 관계회사 등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각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 현재 롯데HD 대표이사 회장, 한국 롯데그룹 회장은 창업자의 차남인 신동빈이 맡고 있습니다.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1. 이사 자질 관련 외부기관의 지적 · 비판

(1) 전체상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 한국 언론은 신동빈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원 보수를 받아왔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권고기관, 기업 거버넌스 전문기관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인 한국국민연금공단(NPS) 및 의결권 행사 권고기관인 CGCG(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는 신동빈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권고기관

CGCG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의안에 반대를 권고



거버넌스 싱크탱크

G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Forum

롯데지주의 자사주 활용 방식을 "꼼수 수단"으로
지목하며 거버넌스 개선 및 자사주 전량 소각을 촉구

한국국민연금공단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활용 규제를
롯데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국민연금 등이 반대했음에도 신동빈의 이사 재선임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

이처럼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권고기관, 기업 거버넌스 전문기관의 지적을 그동안 무시해 왔으며,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도 다양한 외부기관이 비판 및 거버넌스상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한국 롯데그룹 각 사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CGCG는 한국 롯데그룹 주요 각 사 회사 제안 의안 다수에 반대】

- CGCG는 2026년 3월 개최된 롯데칠성음료, 롯데정밀화학,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총 6개사가 각각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회사 제안 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 2026년 보고서에서 CGCG는 신동빈이 롯데지주를 포함한 여러 주요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며 각 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점을 거둬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에서 차순위 임원 보수와 비교해 2배 초과에서 3배 초과에 이르는 보수 격차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며 "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CGCG 보고서 상세 내용은 28페이지 이하 참조)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롯데칠성음료 보상한도 승인 의안에 대해 반대 권고】 (2024년3월)

로리더「롯데칠성 신동빈 30억, 전문경영인 박윤기 보수는?...김희웅 사외이사 반대」 (2024/3/13)

- 과도한 보수: 신동빈이 다른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과도한 보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수 한도 증액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롯데지주를 포함한 계열사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권고】 (2022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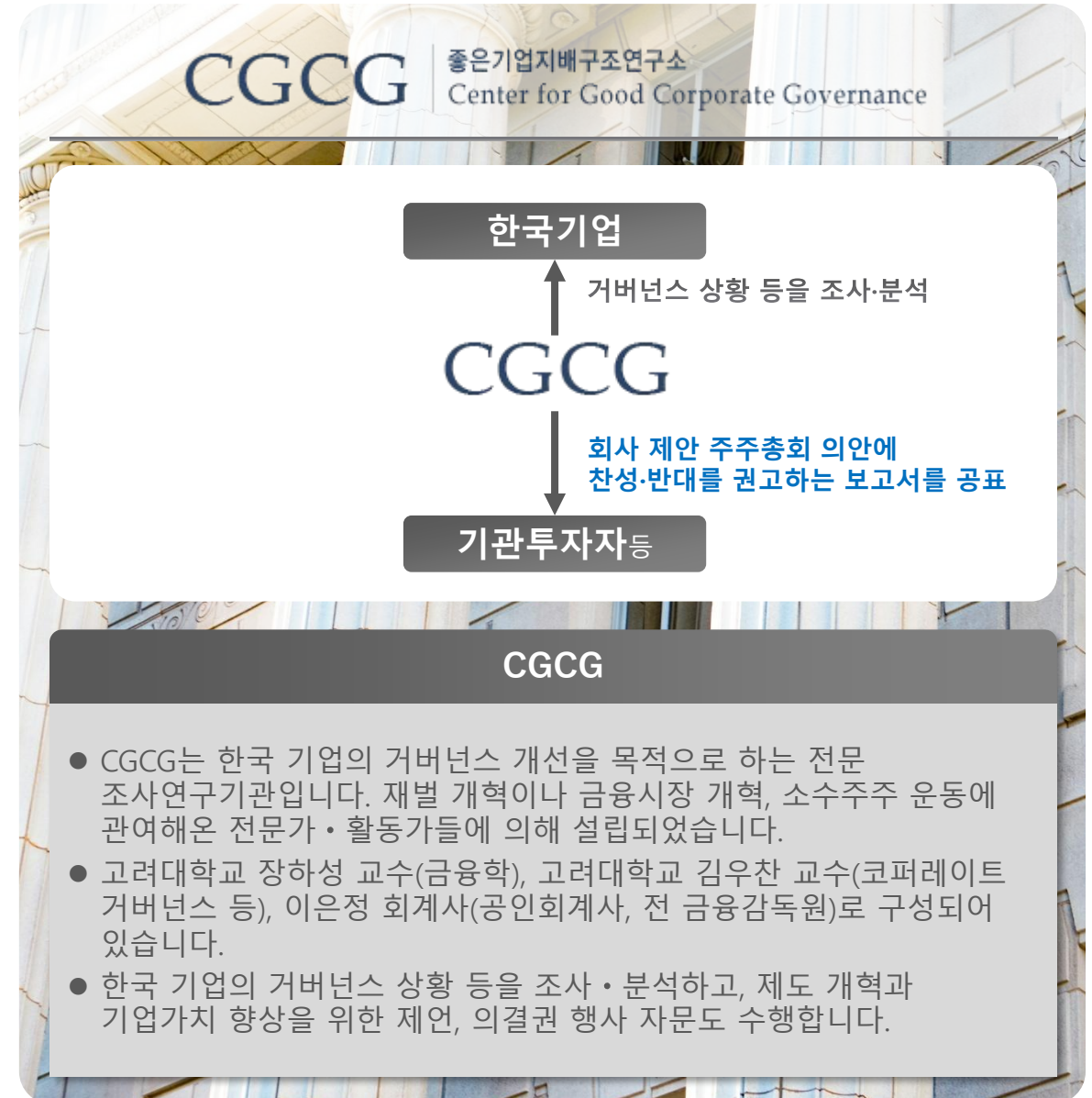
시사오늘(시사ON)「CGCG, 롯데·아모레퍼시픽 주총 안전에 잇따라 반대 권고」 (2022/3/18)

- 경영 적격성: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동빈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음
- 불성실성: 신동빈의 2019~2021년 이사회 출석률은 41.7%로,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는 불성실하다고 평가

【동빈의 롯데지주·쇼핑 사내외이사 선임 반대】 (2020년3월)

뉴스포스트「CGCG "롯데지주·쇼핑 사내·외이사 선임 안전 반대 권고"」 (2020/3/23)

- 경영 적격성: 신동빈은 횡령·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전력이 있어,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독립성: 신동빈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 등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음



2026년 3월 한국 롯데그룹 각 사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롯데지주의 자사주 경영권 방어 활용에 반대】

- 주요 입장: 롯데지주의 자사주 활용 방식을 "꼼수 수단"으로 보고, 거버넌스 개선 및 자사주 전량 소각을 촉구
- 핵심 사안: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열사 간 거래나 경영권 방어용으로 유지하는 것은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함. 또한 "경영권은 자사주가 아니라 실적과 주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환원 정책을 요구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배임죄 처벌 폐지에 대한 우려】 (2025년10월)

ESG경제「기업거버넌스포럼, "배임죄 없애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2025/10/13)

- 사익 추구 억제: 신동빈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등을 들어,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억제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
- 거버넌스 후퇴: 경영자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사익 추구를 억제하는 장치가 약화되어 소수주주 보호와 거버넌스가 후퇴할 것을 우려

【지배주식 매각안 및 자사주 처분안에 대한 반대 권고】 (2025년7월)

KCGF「[포럼 논평] 신동빈 회장 개정 상법 준수하고 주주에게 사과하라 롯데렌탈 지배권 매각, 롯데지주 자사주 처분 중단하라」(2025/7/24)

- 거버넌스 저하: 롯데렌탈의 주식 발행이 단 20분 만에 승인된 것에 대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개정 상법 위반: 신동빈이 자사주를 우호회사에 매각한 행위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 및 충실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

Korean Corporate Governance Forum

조사 · 연구

- 한국에서 개인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
- 상법, 상장규칙,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개정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투자 등의 영향을 국내외에 발신

교육

- 투자자, 사외이사, 사내감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전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전문성·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
-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 한국 기업의 불충분한 거버넌스 관행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이 관여하는 방침.
- 중요한 거버넌스 관련 소송에서 독립적인 증인·의견을 제공하고, 한국의 정책 입안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 KCGF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기관투자자, 변호사, 학자, 그 외 전문가에 의해 설립된, 한국·금융위원회(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등록의 비영리단체.
-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개혁 및 정책 형성에 관한 논의·토론을 주도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韓國國民年金公團 (NPS)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2026년 3월 한국 롯데그룹 각 사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롯데지주의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

- 주요 입장: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활용이 제한되자, 롯데가 정관 변경을 통해 우회로를 마련하려 한다고 비판
- 핵심 사유: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승인되는 구조와, 이로 인한 주주가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롯데칠성음료의 임원 보수 의안 등에 대해 반대를 권고】 (2024년3월)

서울경제「롯데칠성, 국민연금 반대에도 등기이사 보수 한도 65억원 늘려」 (2024/3/20)

- 과도한 보수: 신동빈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수한도 증액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
- 독립성 위반: 롯데칠성음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비판

【롯데쇼핑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 (2020년6월)

the bell「롯데쇼핑 박재완 사외이사, 가파스로 선임 배경은」 (2020/6/11)

- 감시 의무: 롯데쇼핑 회장 신동빈의 국정농단 관여 및 경영 부정 등에 대해, 사외이사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

【신동빈의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2019년3월)

Chosun Biz「롯데칠성음료, 국민연금 반대 넘고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2019/3/28)

- 경영 적격성: 신동빈은 횡령·배임·뇌물 의혹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전력이 있어,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감독 기능 저하: 신동빈이 롯데 계열사 내에서 과도한 겸직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 감독 기능 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

【신동빈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2018년3월)

Biz watch「[국민연금 의결권] ⑩곳 중 6곳에 반대표 던졌다」 (2018/4/19)

- 과도한 겸임: 신동빈의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한국국민연금

한국 국민의 연금기금을 수탁



투자·운용

주식·채권 등 (한국 국내외)

기업의 대주주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참여도 진행

세계 제3위의 연금기금
(총자산액 기준)

국민연금공단(NPS)

- 한국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이면서, 동시에 세계 유수의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이기도 하며, 연금기금으로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 NPS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일환으로,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찬반 판단, 기업통치·ESG·주주가치 향상에 관한 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며,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도 진행한다.

(5) 經濟改革連帶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2026년 3월 한국 롯데그룹 각 사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신동빈 등의 이사 재선임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

- 경제개혁연대 보고서: 경제개혁이슈,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안 중 고려해야 할 사항—국민연금 등이 반대한 임원의 재선임"
- 주요 입장: 신동빈 등 과거 국민연금 및 CGCG가 반대한 경위가 있는 이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는지를 엄격히 재검토하도록 촉구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의 대응

【롯데웰푸드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2025년 7월)

경제개혁연대「롯데웰푸드 이사들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2025/7/29)

- 부당한 보수: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병과류 부당공동행위를 막아야 할 이사회가 감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또한 신동빈의 겸직 및 고액 보수 수령이 "위법·부당한 보수"라고 지적
- 제재 요구: 경제개혁연대 등 소수주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롯데웰푸드의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롯데건설의 사채 발행에 대한 제재 요구】(2024년 2월)

경제개혁연대「롯데케미칼의 롯데건설 사채 지급보증, 계열사 채무보증으로 제재해야」(2024/2/7)

- 제재 요구: 롯데건설의 사채 발행에서 롯데케미칼이 보증한 것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에 의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를 요구
- 규제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조달 지원이며 규제의 취지(재벌 내 연쇄 부실 방지)에 반한다고 비판

【신동빈의 롯데지주를 포함한 계열사 이사 사임을 권고】(2019년 6월)

경제개혁연대「이사회 출석 않는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등은 회사에 부담주지 말고 사임해야」(2019/6/13)

- 불성실성: 신동빈의 2018~2019년 이사회 출석률은 저조했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회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권고



경제개혁연대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경제개혁연대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기업

기업에 대한 질문·문제제기,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등

정부

한국의 경제·기업통치에 관한
정책제언, 관련 법령에 대한 요청 등

미디어·여론

보도기관용 자료나 보고서 공표 등

경제개혁연대(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의 경제·기업통치에 관한 시민단체·정책제언단체
- 보도자료·보고서의 공표,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소수주주의 법적 권리, 상법·공정경제 관련 법령 등의 영역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2. 2026년 3월~4월의 주요 토픽

경영부진 관련

- (1) 롯데쇼핑 Ocado프로젝트의 실패와 경영 부진
- (2) AI전문조직 사업상의 해체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 (3) 640억 원을 투자한 메타버스 사업의 실적 부진
- (4) 롯데칠성음료의 신제품 부진과 사업 규모 축소

거버넌스 문제 관련

- (5) 롯데 "분산경영"의 한계
- (6)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동빈과 측근의 고액 보수 문제
- (7) 적자 경영 중 신동빈의 고액 보수·배당 문제
- (8)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시정명령
- (9) 롯데쇼핑 임직원의 급여 인상 격차 문제

AI나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의 부진뿐만 아니라, 롯데칠성음료도 부진
나아가 롯데쇼핑의 부정거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짐
이러한 대규모 적자 속에서 신동빈은 고액의 보수·배당을 받음

경영 부진 관련 보도

(1) 롯데쇼핑 Ocado프로젝트의 실패와 경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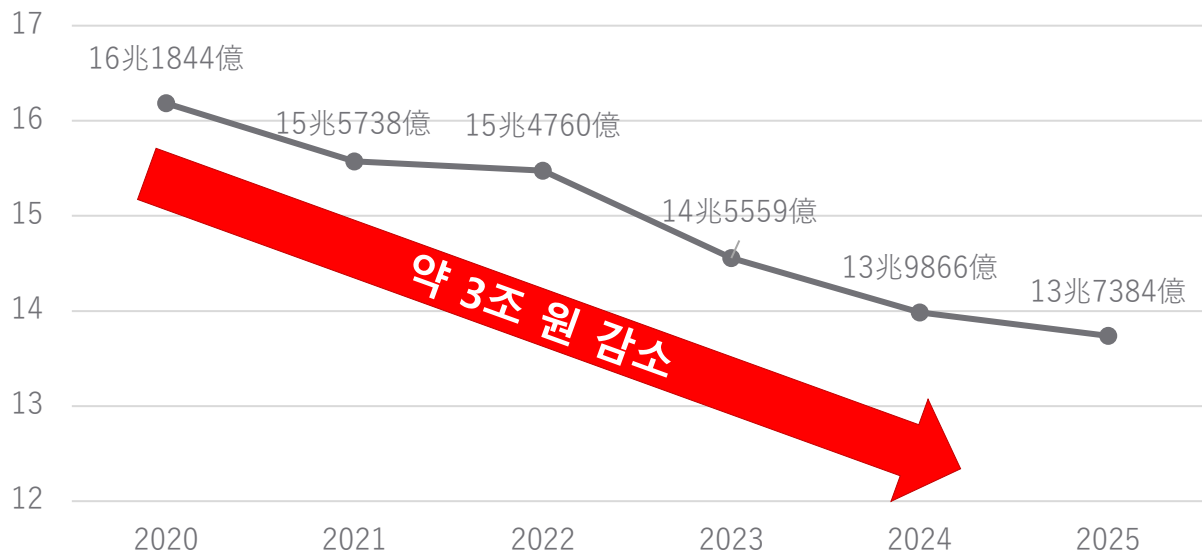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롯데쇼핑, 매출 감소 장기화에 오카도까지 지연... '유통 명가' 재건 안갯속 - 마이데일리」 (2026/4/1 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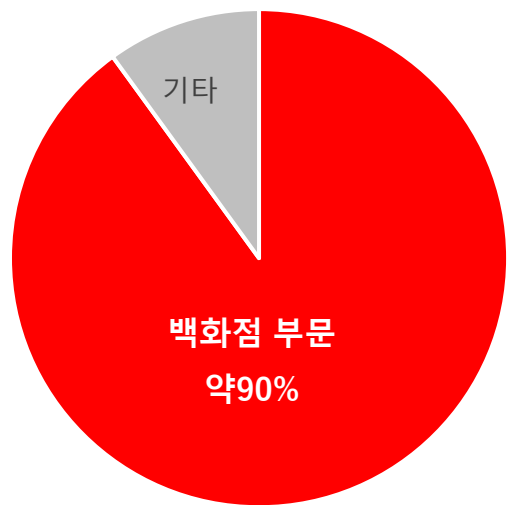
- 롯데쇼핑의 매출 감소 추세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신동빈이 승부수로 내세운 Ocado 프로젝트가 흔들리며,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롯데쇼핑의 매출은 지난 5년간 약 3조 원 가까이 줄었고, 2026년 실적 목표도 크게 하향 조정되는 등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롯데쇼핑 전체 이익의 약 90%를 백화점 사업에 의존하는 반면, 마트·이커머스·홈쇼핑은 부진이 이어지며 수익 구조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 Ocado 프로젝트 역시 새로운 성장 전략이 가동 지연 및 추진력 저하로 흔들리고 있으며, 재건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롯데쇼핑 매출

단위: 조 원



롯데쇼핑 영업이익 부문별 비율



- 백화점 부문의 영업이익은 롯데쇼핑 전체 영업이익(5,470억 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수익이 백화점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백화점 사업에 대한 수익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 AI전문조직 사업상의 해체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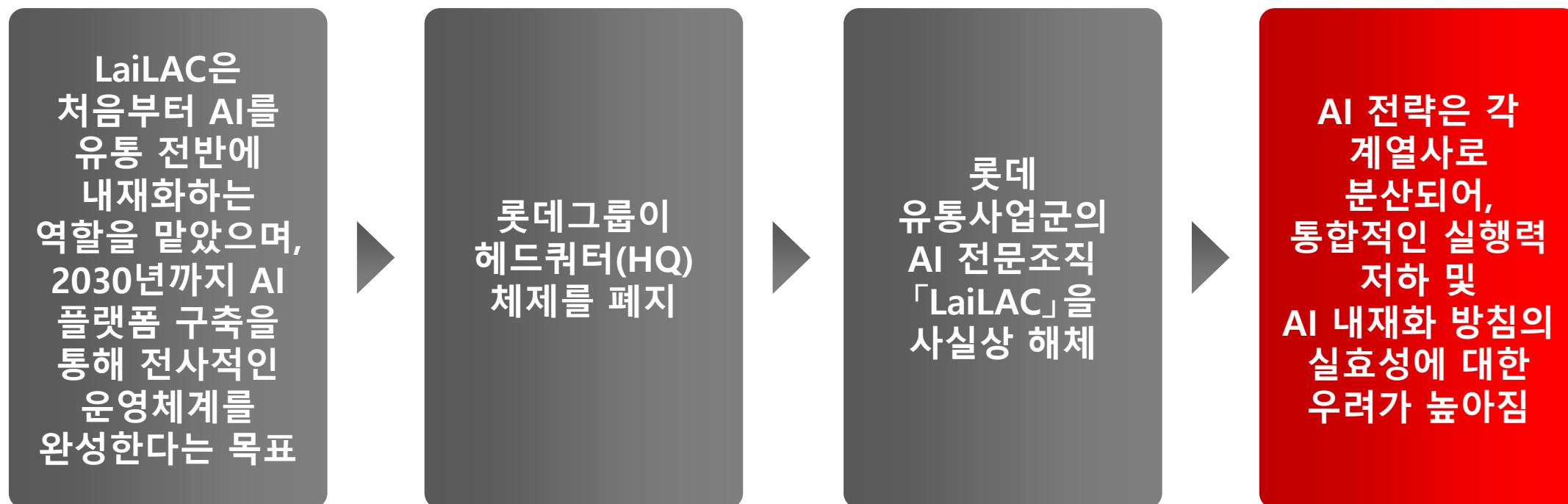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부산일보】

부산일보 「다들 AI 외치는데... 롯데 유통 AI 전담 조직 사실상 해체 - 부산일보」 (2026/3/30 18:35)

- 롯데그룹이 헤드쿼터(HQ) 체제 폐지에 따라, 롯데 유통사업군의 AI 전문조직 「Lotte AI Lab Alliances & Creators(약칭: LaiLAC)」를 사실상 해체했다고 보도되었다.
- LaiLAC은 신설 당시부터 에이전틱 AI를 유통 전반에 내재화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2030년까지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사적인 운영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러나 AI 전략은 각 계열사로 분산되었고, 통합적인 실행력 저하 및 "AI 내재화" 방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AI팀에 의한 총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분산 체제 속에서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3) 640억 원을 투자한 메타버스 사업의 실적 부진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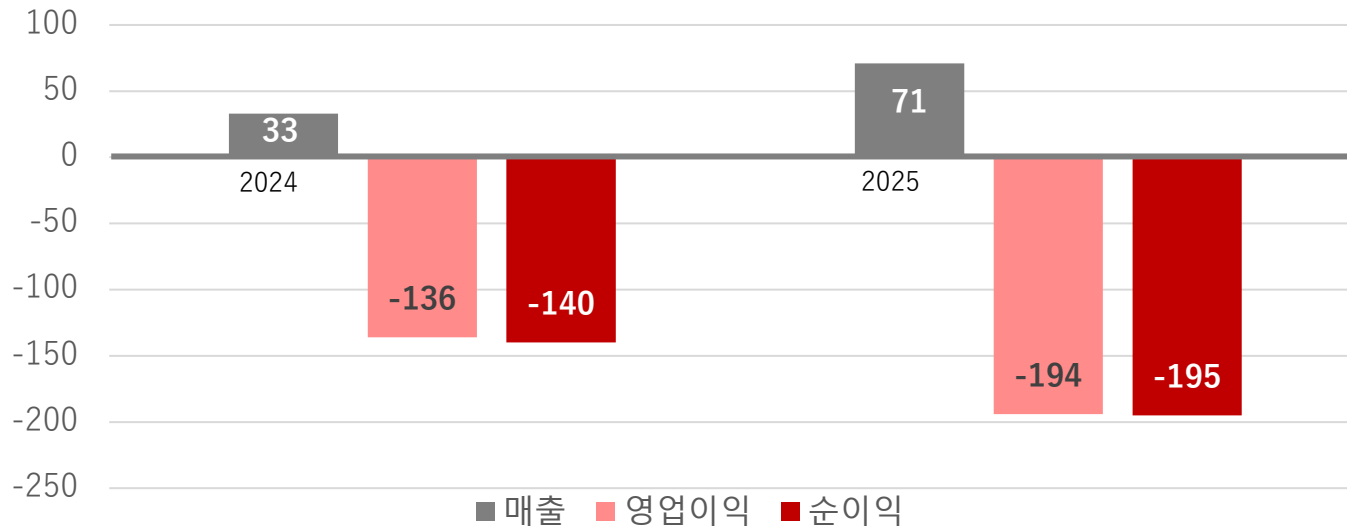
【ZDNet korea】

ZDNet korea 「[단독] 640억 쏟은 칼리버스 존폐기로...롯데, 메타버스 사업 두고 골머리 - ZDNet korea」 (2026/3/24 15:30)

- 롯데그룹은 신동빈이 주도하여 약 640억 원을 투자한 메타버스 사업(칼리버스)에 대해, 적자가 지속되고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해 2026년 3분기까지의 성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의 80% 이상이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손실이 매출을 크게 웃도는 등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손상처리되는 등 가치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 비용 절감과 3D 콘텐츠 중심으로의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성장 둔화도 겹쳐 신성장 사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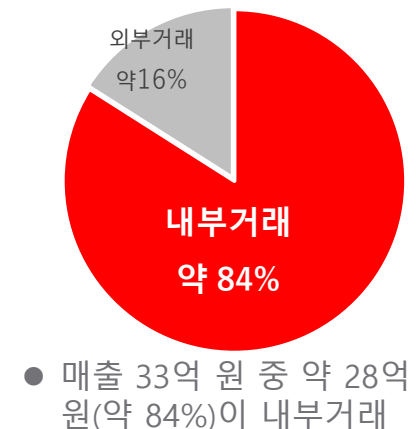
칼리버스 사업 매출 · 영업이익

단위: 억 원



칼리버스 매출 내역

2024년 매출 33억 원



(4) 롯데칠성음료의 신제품 부진과 사업 규모 축소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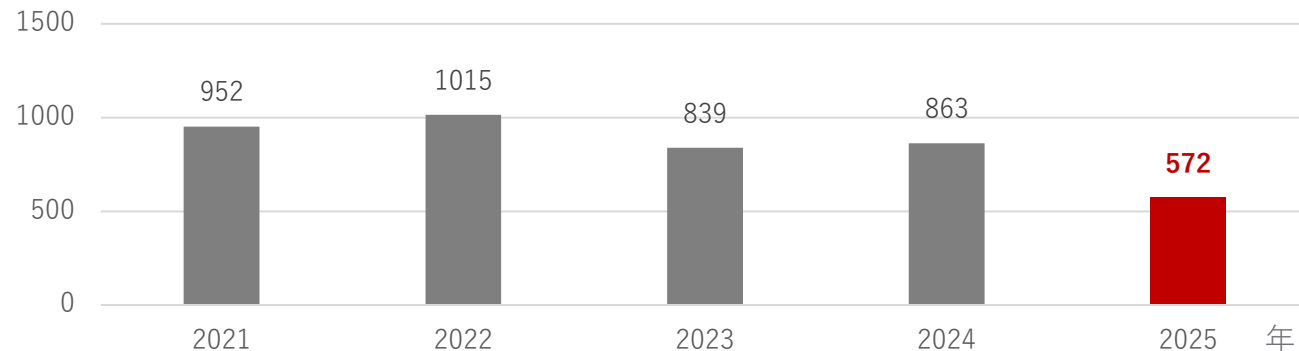
【Bizwatch】

Bizwatch「매출 34% 급감...롯데칠성 '맥주' 또 수술대 올랐다」(2026/3/20)

- 롯데칠성음료 맥주 사업의 신제품 부진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대폭 축소가 보도되었다.
- 맥주 사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원인으로서는 "크러시" 등 신제품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브랜드 난립과 단기적인 전략 변경이 이어지면서 시장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점이 거론되고 있다.
-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맥주 사업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해외시장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지만, 재성장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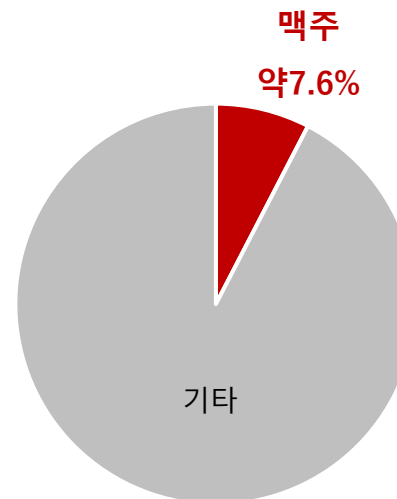
롯데칠성음료 맥주 매출

단위: 억 원



- 맥주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2024년은 신제품 전략 "크러시"의 출시 효과로 2023년보다 2.9% 성장하는 데 성공했으나, 2025년에는 500억 원대까지 후퇴했다.
- 2025년 맥주 매출액은 2022년과 비교하면 44% 감소했다.

주류 부문 내 맥주의 매출 비율(2025년)



- 맥주 매출이 주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에 7.6%까지 떨어졌다.
- 이 수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주 매출을 별도로 공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거버넌스 문제 관련 보도

(5) 롯데 "분산경영"의 한계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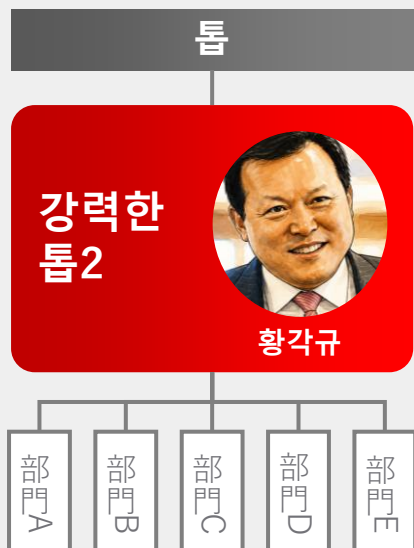
#SavetheLOTTE

【Financial Post】

Financial Post「[재계 2인자] 롯데지주의 '사장단 정치', 신동빈의 남자 누가 될까 < 재계·전자 < 산업 < 기사본문 - 파이낸셜포스트」(2026/4/4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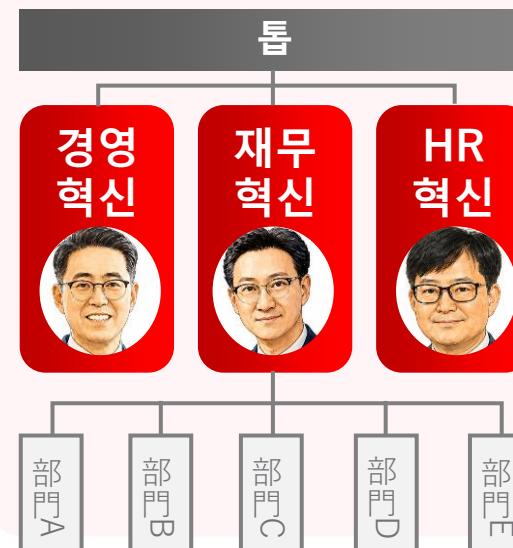
- 신동빈이 부회장단을 전부 물러나게 하고, 노준형(경영혁신), 고정욱(재무혁신), 박두환(HR혁신) 3인의 사장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으나, 과거 롯데와 같은 강력한 넘버2가 부재한 가운데 추가적인 의사결정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집단지도체제"의 3분할 체제는 기능적 전문성은 높지만,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건 결단을 지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나 실적 부진 속에서도 책임 회피적인 "책임 분산형" 경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누가 실적으로 "차기 넘버2"가 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이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3인 전원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어, 체제 자체의 성패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과거 "집중경영"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강한 실행력을 가진다.
-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판단에 일관성이 있고, 흔들리기 어렵다.
- 리더십과 책임자가 명확하다.

현재 "분산경영"



- 의사결정력이 저하되는 동시에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 전문성은 높지만, 의견이나 판단에 흔들림이 생기기 쉽다.
-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지만,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 분산형 경영"이 되기 쉽다.

(6)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동빈과 측근의 고액 보수 문제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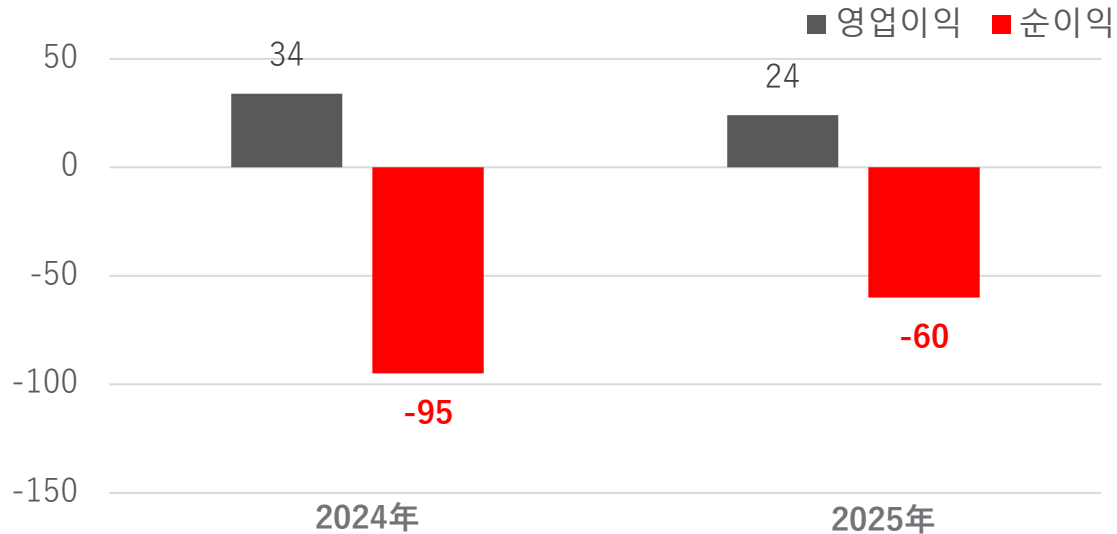
【M Today】

M Today 「신동빈 롯데회장, 롯데지주 연봉 전년보다 30% 적은 42억 수령 < 산업 < 기사본문 - 엠투데이」 (2026/3/16 20:59)

- 신동빈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롯데지주로부터 42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롯데지주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드러났다.
- 또한 신동빈 외에도 이동우 고문이 지난해 56억 9,100만 원, 임선복 부사장이 7억 9,8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의 영업이익 ·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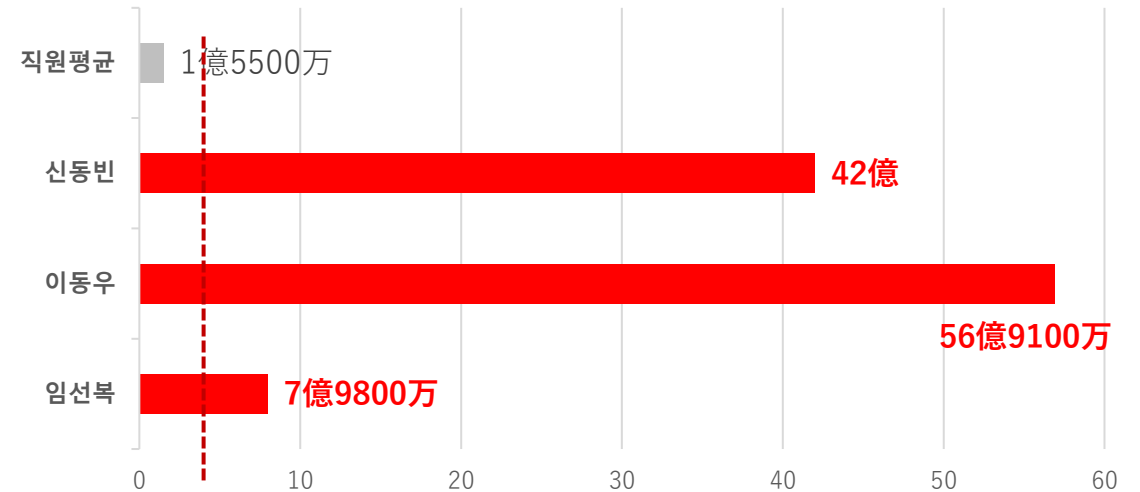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영업이익은 2025년도에 2,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 순손익은 2024년도 9,460억 원에 이어, 2025년도에도 5,95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직원 평균 연봉과의 비교도

단위: 원



- 신동빈과 측근 2인이 롯데지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 직원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최대 약 36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7) 적자 경영 중 신동빈의 고액 보수 · 배당 문제

【뉴스웬】

뉴스웬 「롯데그룹 경영난 허덕이는데 ‘신동빈 보수’는 독보적 1위, 챗GPT도 “적정성 부족”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뉴스웬」 (2026/3/16 9:36)

- 롯데그룹은 실적 악화가 뚜렷한데도 적자 경영 속에서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롯데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신동빈은 2023~2024년 2년 연속 20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지배주주 중 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열사로부터의 고액 보수에 더해, 경영난이 이어지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배당도 받고 있다.
- 경영난 속에서 지배주주인 신동빈이 막대한 보수에 더해 배당까지 받는 것은, 일반주주들로부터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 미디어의 AI 분석에서도 주요 3개사의 보수와 배당이 실적에 비해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으며, 기업의 성장 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롯데그룹 주요 기업 경영 실적

회사명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년간 당기순이익	배당
롯데지주	239,439	-595,003	-1,377,403	96,007
롯데쇼핑	547,037	73,556	-751,339	79,157
롯데웰푸드	109,519	71,390	221,190	29,176
롯데케미칼	-943,115	-2,476,176	-43,544	21,083

단위: 백만 원

(8)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시정명령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연합뉴스】

연합뉴스「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 연합뉴스」(2026/3/15 12:00)

-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위반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5.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사·101건의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를 최대 201일 지연하고, 대금 지급도 최대 386일 늦췄으며, 지연이자 약 3,4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왔다.
- 일련의 위반은 롯데마트 사업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통 대기업으로서의 거버넌스와 거래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1年

2022年

2023年

2024年

2025年

계약서 교부: 최대 201일 지연
지연이자: 약 3,400만 원 미지급
대금 지급: 최대 386일 지연
등...

누계**97**회사·**101**건
불공정거래 발각

결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약 5.7억 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을 명령



롯데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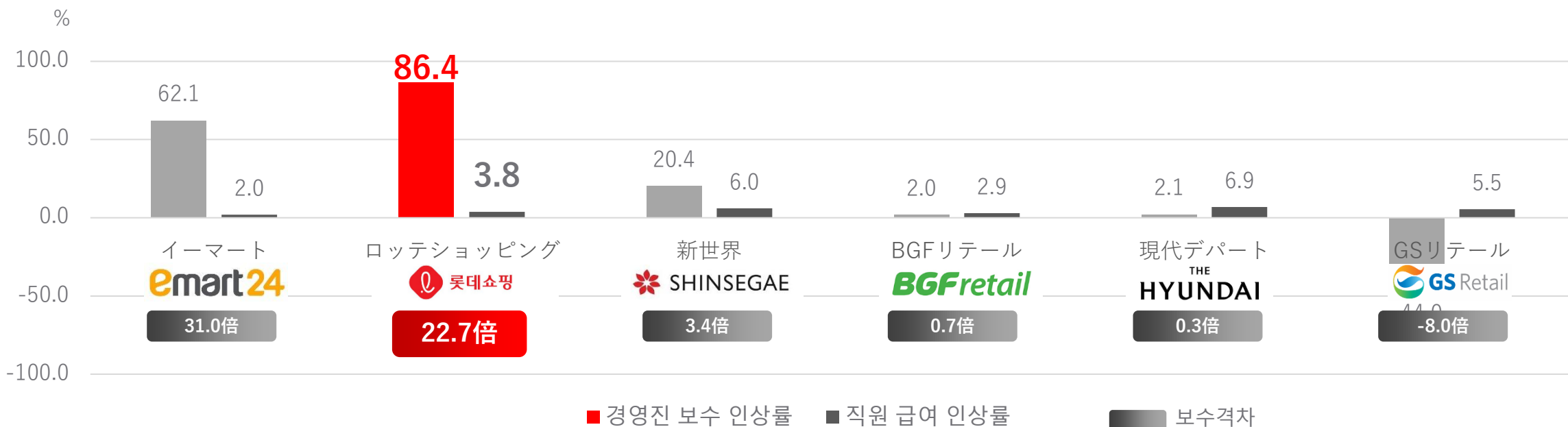
(9) 롯데쇼핑 임직원의 급여 인상 격차 문제

【대한경제】

대한경제 「[유통사 임금 보고서] ① 유통 6개사, 지난해 실적 회복 과실 오너 포함 경영진만 꿀꺽 - 대한경제」 (2026/4/20 6:00)

- 유통 6개사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 늘어나며 회복했지만, 직원 급여 상승률은 4.7%에 머물러, 경영진으로의 보수 집중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별로 실적과 보수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 특히 롯데쇼핑 신동빈의 보수는 전년 대비 86.4% 늘어나며 급등해, 영업이익 증가율(15.6%)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직원의 급여 인상은 3.8%에 머물러, 신동빈의 보수 증가율은 직원의 23배에 달하는 등, 실적 회복의 과실이 현장이 아니라 경영진에 편중된 점이 두드러진다.
- 또한 롯데쇼핑의 등기이사 전체 보수도 174.8% 증가하며 크게 늘어나, 경영진에 대한 보수액의 편중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경영진과 직원의 보수 · 급여 인상률



Appendix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칠성음료	제2-2호 기타 정관 변경 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반대	-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할 수 있는 책임 경감 조항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 상법 제400조는 회사가 정관상 책임 경감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 경감 조항을 통해 회사 스스로 손해보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촉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이사의 책임 경감 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
	제5호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 건	반대	- 회사는 이사 보수 상한을 작년(55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한 45억 원으로 설정했다. -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신동빈 회장은 2025년 3월 25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2025년 사업보고서상 해당 기간까지 등기임원으로서 7.5억 원의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에는 미등기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으며, 2025년에 받은 보수 총액은 22.5억 원이다. - 보수 수령액 2위인 박윤기 대표이사는 5.8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신동빈 회장과의 보수 격차는 약 3.89배이다. 신동빈 회장은 등기임원이었던 2024년에는 34.8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보수 수령액 2위인 박윤기 대표이사와의 격차는 약 5.68배였다. - 또한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에서 등기임원을 겸임하며 보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임원을 겸임하며 여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다른 대표이사보다 3.89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신동빈 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사 보수한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정밀화학	제2-5호 기타 정관 변경 건 (이사의 임기 연장)	반대	● 당사는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임기 연장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이사의 자질이나 (재임의 경우) 업무수행 상황을 평가할 기회가 감소한다. ●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기회가 감소한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기업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기회가 감소하면 집중투표제의 활용 가능성도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실적이 있는 이사에게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싶다면, 이사의 재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따라서 이사 임기 연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한다.
	제2-6호 기타 정관 변경의 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경감)	반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할 수 있는 책임 경감 조항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상법 제400조는 회사가 정관에 책임 경감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 경감 조항을 통해 회사 스스로가 손해보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 경감 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쇼핑	제2-5호 자사주 보유 및 처분 절차 신설에 관한 정관변경 의안	반대	●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이나 신주 발행은 모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희석화 효과로 인해 의결권이나 지분가치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관 제10조의2(안)를 신설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5호 의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
	제2-6호 이사의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	반대	● 상법 제400조는 회사가 정관상 책임 경감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 경감 조항을 통해 회사 스스로가 손해보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 경감 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
	第5号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 건	반대	● 당사는 이사 보수 상한을 작년과 동일하게 110억 원으로 설정했다. ● 지배주주인 임원인 신동빈 대표이사가 2025년에 받은 보수 총액은 36.6억 원이다. 보수 수령액 2위인 김상현 대표이사는 퇴직금(9.7억 원)을 제외하고 14.9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과는 보수 격차는 약 2.48배이다. ● 또한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롯데쇼핑에서 겸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여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 다른 대표이사보다 2.48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과도하게 겸직 상태에 있는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사 보수한도에 관한 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제2-2호	기타 정관변경 관련	반대	●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이나 신주 발행은 모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희석화 효과로 인해 의결권이나 지분가치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관 제10조의2(안)를 신설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5호 의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 ● 참고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롯데정밀화학,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도 이사의 책임 경감 조항을 도입한다. 다만 롯데웰푸드(보통결의)와는 달리, 그 외 기업은 더 엄격하게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신동빈 등 롯데웰푸드 이사들에 대해서는, 2025년 중 빙과류 카르텔에 관한 과징금, 그리고 신동빈 대표이사의 겸직 상태에서의 보수에 대해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롯데웰푸드		반대	【①겸직 과다】 ● 신동빈 후보는 당사 및 롯데홀딩스,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에서 미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 과도한 겸직 상황을 감안하면, 신동빈 후보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하위 계열사의 대표이사나 상무이사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②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 신동빈 후보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부정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해당 사건은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판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력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롯데웰푸드는 2022년 2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빙과류 카르텔(카르텔 기간: 2016년 2월~2019년 10월)에 대해 약 244.7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웰푸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짐)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웰푸드	제3-1호 신동빈 사내이사 선임 건	반대	(전 페이지에서 이어짐) - 대신, 카르텔에 참여했던 롯데푸드가 2022년 7월경 롯데웰푸드에 합병됨에 따라, 동사의 과징금 237억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과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롯데웰푸드는 롯데푸드의 "제2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항소심에서는 롯데웰푸드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신동빈 후보는 롯데웰푸드가 롯데홀딩스(구 롯데제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신동빈 후보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위 담합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이에 신동빈 후보의 재선임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
	제3-4호 신영선 사외이사 선임 건	반대	- 신영선 후보는 2024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24년 3월부터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액 및 등기이사의 개별 보수(실적연동 보수 포함)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보수위원회는 2025년 1월, 2024년도 등기이사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2025년도 임원 보수 상한 승인, 2025년도 등기이사 개별 보수 산정에 관한 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승인했다. 동사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수 상한으로 70억 원을 상정했다. - 참고로 전 사업연도(2024년)에 승인된 보수 한도액은 70억 원이며, 이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55억 원이다. 또한 당기 이사 수는 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9명이다.
	제5호 사외이사 신영선의 감사위원 선임 건	반대	회사는 현 사외이사 감사위원인 신영선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신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제3-4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웰푸드	제6호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 건	반대	● 회사는 이사 보수 상한을 작년과 동일하게 70억 원으로 설정했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임원인 신동빈 대표이사가 2025년에 받은 보수 총액은 25억 9,700만 원이다. ● 보수 수령액 2위인 이영구 고문은 퇴직금(26.8억 원) 및 급여에 반영된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8.8억 원(동사는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인 8.8억 원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공시하고 있다)을 제외하면, 12.3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경우 신동빈 회장과의 보수 격차는 약 2.1배이다. ●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에서 겸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여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 차순위 보수 수령자보다 2.1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과도하게 겸직 상태에 있는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사 보수한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케미칼	제2-8호	이사 정수 상한 하향 조정	반대	- 정관 제31조 제1항의 변경은 이사회 정수를 현행 11명 이내에서 9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관에 따라도, 회사는 9명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후보 및 집중투표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예정하는 이사회 구성보다 1~2명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사회 규모 확대에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견제·기능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 - 한편 이사 수에 상한을 두면, 소수주주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의 수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주주제안권이 제한되고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이며, 임기 만료 및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선임이 완료될 경우 총 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처럼 정관이 개정되면, 이미 이사 정수 9명을 모두 채우게 되어, 임시 주주총회 등을 통한 이사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결과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은 이사 후보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의 의무화,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 증원 등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케미칼	제2-9호	이사 임기 변경	반대	- 정관 제33조 제1항의 변경은 이사의 임기를 현행 "2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사는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의 안정성 향상"을 임기 연장의 목적으로 공표했다. -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사에 대한 평가 기회도 축소된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사 선임 기회가 줄어들면 집중투표제의 활용 가능성도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특히 이번 변경은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 경우 회사는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주주제안의 가능성이나, 분리선임이 의무화된 감사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의 임기를 정할 수 있다. - 이른바 "시차임기제"를 통해, 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지명, 집중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가능성이나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해당 정관 변경의 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3년 또는 2년으로 각각 다른 기간으로 설정했다. - 따라서 해당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2) CGCG 추천 보고서 2026년

Part 2

롯데그룹 이사로서의 자질

#SavetheLOTTE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케미칼	제3-1호 이영준 사내이사 선임 건	반대	● 당사는 현 대표이사인 이영준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 신동빈 대표이사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부정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은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판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력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이영준 후보는 2025년 3월 6일 개최된 롯데케미칼 이사회에서 신동빈 이사의 재임에 찬성했다(제49기 정기 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정 건에 대한 찬성). 따라서 이영준 후보의 재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있는 이사 후보에 찬성한 경력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3-3호 성낙선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반대	● 당사는 현재 화학부문 PSO 재무혁신본부장(CFO)인 성낙선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 성낙선 후보는 2025년 3월 6일 개최된 롯데케미칼 이사회에서 신동빈 이사의 재임에 찬성했다(제49기 정기 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정 건에 대한 찬성). 따라서 성낙선 후보의 재임에 대해서 제3-1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3-4호 손병혁 사외이사 선임 건	반대	● 회사는 손병혁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 손병혁 후보는 2025년 3월 6일 개최된 롯데케미칼 이사회에서 신동빈 이사의 재임에 찬성했다(제49기 정기 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정 건에 대한 찬성). 따라서 손병혁 후보의 재임에 대해서 제3-1호, 제3-3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3-5호 오윤 사외이사 선임 건	반대	● 회사는 오윤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 오윤 후보는 2025년 3월 6일 개최된 롯데케미칼 이사회에서 신동빈 이사의 재임에 찬성했다(제49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결정 건에 찬성). 따라서 오윤 후보의 재임에 대해서 제3-1호, 제3-3호, 제3-4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케미칼	제4호 사외이사 최원경의 감사위원 선임 반대 건	반대	- 회사는 최원경 후보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분리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 최원경 후보는 공인회계사로, 2016년부터 BDO성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주총회 공고에 따르면, 당사는 BDO성현 회계법인과 회계자문계약을 체결한 경력이 있다. 최 후보는 동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해당 자문계약을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 후보가 소속된 회계법인과 회사 사이에 직전 3년간 자문 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회사에 대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원경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제5호 오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	반대	당사는 오윤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동 의안에 대해서는, 제3-5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반대	- 동사는 이사 보수 상한을 작년(110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한 100억 원으로 설정했다. - 지배주주인 신동빈 대표이사가 2025년에 받은 보수 총액은 22.7억 원이다. - 보수 수령액 2위인 이영준 대표이사는 6.3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신동빈 회장과는 격차는 약 3.63배이다. 신동빈 회장은 2024년에는 38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2위 수령자와의 격차는 4.69배였다. - 또한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롯데쇼핑에서 겸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여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 다른 대표이사보다 3.63배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과도하게 겸직 상태에 있는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사 보수한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롯데지주	제2-4호	자사주 처분 및 보유 기준 신설 관련 건	반대	● 회사는 제2-4호 의안으로, 자사주의 보유 또는 처분 절차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을 상정했다. 동 의안은 자사주와 관련해 2026년 3월 4일 개정된 상법을 고려해, 자사주의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정관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보통결의)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동조가 정하는 사유에는 주주할당처분(제1호), 임직원에 대한 보수(제2호), 종업원지주제도(제3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활용(제4호), 그리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5호)가 있다. ● 이 중 제5호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관에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회사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고(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341조의4 제5호의 자사주 보유·처분 사유를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제9조의2(안)를 신설하려 한다. 동 개정안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사주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처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신주 발행과 동일하며,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이미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제3자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상 근거가 필요하나, 당사는 이미 정관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의 근거를 두고 있어, 자사주에 대해서도 경영상 목적에 의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 더욱이 제3자에 대한 자사주 처분이나 신주 발행은 모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희석화 효과로 인해 의결권이나 지분가치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결론적으로 정관 제9조의2(안)를 신설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4호 의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제2-5호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신설 건	반대	●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로 제한할 수 있는 책임 경감 조항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상법 제400조는 회사가 정관에 책임 경감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임 경감 조항을 통해 회사 스스로가 손해보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향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에 의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제2-6호 의안인 이사의 책임 경감 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 ● 참고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정밀화학,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도 책임 경감 조항을 도입한다. ● 롯데웰푸드(보통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는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신동빈 등 롯데웰푸드의 현·전직 이사들에 대해서는 2025년 중 빙과류 카르텔에 관한 과징금, 그리고 신동빈 대표이사의 겸직 상태에서의 보수에 대해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제3-1호	신동빈 사내이사 선임 건(임기 3년)	반대	【①겸직 과다】 ● 신동빈 후보는 당사 및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에서는 미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 이 외에도 2025년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해당 공시 시점(2025년 1분기 기준) 롯데홀딩스, L 제1~12 투자회사, LSI, LOTTE LIQUOR JAPAN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다. ● 과도한 겸직 상황을 감안하면, 신 후보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하위 계열사의 대표이사나 상무이사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짐)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제3-1호	신동빈 사내이사 선임 건(임기 3년)	반대	(전 페이지에서 이어짐) 【②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 신동빈 후보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부정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해당 사건은 경제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판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력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신동빈 후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롯데웰푸드는 2022년 2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빙과류 카르텔(카르텔 기간: 2016년 2월~2019년 10월)에 대해 약 244.7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다만 롯데웰푸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카르텔에 참여했던 롯데푸드가 2022년 7월경 롯데웰푸드에 합병됨에 따라, 동사가 237.4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 해당 과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롯데웰푸드는 롯데푸드의 "제2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항소심에서는 롯데웰푸드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신동빈 후보는 롯데웰푸드가 롯데홀딩스(구 롯데제과)로부터 분할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신동빈 후보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위 담합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이에 신동빈 후보의 재선임 의안에 대한 반대를 권고한다.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제3-5호	조병규 사외이사 선임 건(임기 3년)	반대	- 회사는 조병규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다른 사외이사 후보(이경춘, 김혜경)의 임기는 2년인 반면, 조 후보의 임기는 3년으로 상정되었다. - 조 후보는 우리금융그룹 출신으로, 2022~2023년 우리은행 부행장(기업그룹), 2023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2023~2024년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우리은행을 포함한 4대 시중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시 담보비율(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는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515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동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2026년 2월경 내려졌으며, 각 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담합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 담합 행위는 조 후보가 은행장(대표이사)으로 재직 중에 발생했다. 따라서 동 후보는 적어도 위 담합 사건에 대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이를 근거로 조병규 후보에 대해서 불법행위(담합)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4호	조병규 감사위원선임 건 (임기 3년)	반대	회사는 조병규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임기 3년)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동 의안에 대해서는 제3-5호 의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
제5호	사외이사 김혜경의 감사위원 선임 건(임기 2년)	반대	- 김혜경 후보는 2024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의 보수 상한, 등기이사의 개별 보수(실적급 포함)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보수위원회는 2025년 1월, 2024년도 등기이사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및 임원 보수 변경 승인을 전원 일치로 가결했으며(제1회 보수위원회), 2025년 3월에는 2025년도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 비등기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상 제2회 보수위원회) 및 대표이사 등의 보수 승인의 건(제3회 보수위원회)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짐)

의안		추천 내용	반대 이유(발췌)
제5호	사외이사 김혜경의 감사위원 선임 건(임기 2년)	반대	(전 페이지에서 이어짐) ● 신동빈 대표이사는 본사를 비롯해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미등기)에서도 재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다. ● 롯데홀딩스에서는 2025년에 42.1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보수액 2위인 이동우 전 대표이사의 보수 11.6억 원(퇴직금 및 퇴직금 한도초과액 제외)의 3.6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계열사에서 과도하게 겸직하고 있는 지배주주 임원에게, 다른 전문경영인과 비교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보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수 지급이나 보수체계를 검토·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재 보수위원장인 김혜경 후보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반대	● 제5호 의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사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신동빈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과 비교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

#Savethe**LOTTE**